

새로 육성한 뽕잎 생산용 “신성뽕”의 특성

성규병, 남학우, 이상욱, 김현복, 홍인표, 남성희, 손봉희, 정인모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과

양잠은 누에를 길러 고치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양잠산업과 뽕나무, 누에산물이 갖고 있는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하는 기능성양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잠산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개방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등 생산비가 낮은 나라의 경쟁력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누에가루, 동충하초 생산등 누에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하는 기능성 양잠으로 잠업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누에는 단식성 곤충으로 뽕잎의 질과 수량성에 따라 누에 사육성적이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누에 사육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나, 잠업 기술선도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량한 뽕나무 품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새로운 뽕나무 품종 신성뽕을 육성, 등록하고 그 특성을 보고한다.

1. 신성뽕은 백상형(*Morus alba* L.)에 속하는 암나무이며 직립성의 중생종이다.
2. 잎의 크기는 중형으로 잎두께는 두꺼우며 타원형 및 2~5열엽 혼재하는 이엽성 품종이다
3. 대조품종인 상일뽕에 비하여 가지의 수는 약간 많고 평균 가지길이는 매우 길다. 마디사이길이와 춘잠기의 새순길이는 길다. 고손장 비율은 다소 높으나 기부 불발아장 비율은 약간 낮다.
4. 누에 사육시험에 의한 사료가치 검정결과, 춘추잠기 모두 화용비율, 전전중, 견충중 등이 상일보다 높아 엽질이 우량한 것으로 평가됨